

## 『마저리 캠프 서』의 복수 서문: 아룬델의 칙령과 긴 서문의 탄생

이 회 구

인하대학교

### I

『마저리 캠프 서』(*The Book of Margery Kempe*)의 서문(proems)은 당시 사람들이 애독하던 성자전의 서문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다보니 캠프를 어설프게 성자들을 모방하려는 견습성자(apprentice saint)로 보려는 비평가들에게, 이 서문은 얼핏 성자전 서문의 전통을 전유하면서 성자의 권위에 접근하려는 시도의 일환 혹은 책의 “힘들었던 탄생”(difficult genesis)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Beckwith 37).<sup>1</sup> 하지만 독특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텍스트 속의 두 개의 서문은 성자전과의 유사성이라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을 요

<sup>1</sup> 거의 대부분의 연구물에서 마저리 캠프를 간략히 지칭하기 위해 그의 이름인 “마저리”가 사용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전통을 따르자면 “마저리”를 사용해야 하겠지만, 남성작가를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성을 사용하면서 여성작가만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그를 “캠프”로 호칭하겠다. 이와 더불어 스테일리(Lynn Staley)의 주장처럼 저자인 “캠프”와 등장인물인 “마저리”를 구분해야 필요가 있기에, 처음부터 저자인 그를 “캠프”로 지칭하는 것이 유사한 논의에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마저리 캠프를 지칭하는 대명사에 있어서도 번역투의 “그녀”보다 “그”를 사용하겠다. 다만 인용문이나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사용할 경우도 있다.

구한다. “구전 문화의 특징인 담론의 유동성”(the fluidity of discourse found in oral cultures)을 가진 필사본 문화는 작품의 완결성을 지연시키고 작품에 새로운 개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Sturges 123). 이러한 독특한 상황에서 태어난 중세의 작품은 여러 개의 서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많은 작가들은 새로운 서문의 삽입을 통해 정치·종교적 상황에 대처하기도 했다. 『마저리 캠프 서』의 경우 유일한 필사본에 두 개의 다른 서문이 함께 실려 있다는 사실은 캠프의 창작 과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대적 어젠다에 대하여 이 저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서문이 가능했던 필사본 문화와 당대의 많은 작가들이 공유했던 서문의 전통을 통해 캠프가 어떤 방식으로 아룬델의 칙령(Arundel's Constitutions)과 같은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는지 살펴보려한다.<sup>2</sup>

## II. “드러내놓고” 말하다/ 말하지 않다

이 책은 1758 단어로 된 긴 서문과 278 단어의 짧은 서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긴 서문은 짧은 서문보다 약 6배 정도가 더 길다. 하지만

<sup>2</sup> 캠프와 그의 책을 논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논의는 그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캠프와 두 명의 남자, 즉 캠프의 구술을 글로 ‘옮긴’ 두 필사가 사이에서 맴돌았다. 가부장적 비평을 대표하는 허쉬(John Hirsh)처럼 두 번째 필사가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환원시키거나 여성주의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스테일리처럼 캠프라는 저자에게 환원시키는 것 모두 이 텍스트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위의 극단적 접근 방법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모든 동인(agents)을 제외하고 순전히 텍스트적인 목소리에만 집중하자는 에반스(Ruth Evans)의 주장도 그 텍스트가 끊임없이 재현하는 자서전적인 ‘캠프’의 존재 앞에서 힘을 잃는다. 이제까지 나온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은 왓슨의 공조론(共助論)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캠프와 필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 책이 무사히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이는 이 둘이 『마저리 캠프 서』의 서사와 서문을 쓰기에 앞서 같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룬델의 칙령이 공표된 이후 새로운 검열을 통해 속어신학이 몰락하는 가운데 캠프와 두 번째 필사가 모두가 공유했어야 하는 가장 급박한 어젠다는 ‘그들’의 책을 독자와 청자의 유익을 위해 남기는 것이 틀림없다. 캠프와 필사가 사이의 갈등과 이에 따른 저작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역동적인 교섭을 통해 『마저리 캠프 서』는 탄생할 수 있었다. 왓슨의 주장대로 두 번째 필사가의 해독은 이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공유하는 저자와 필사가 사이에 만들어진 “성공적인 공조”(a successful collaboration)라고 할 수 있다(Watson, “Making” 407-15).

책 안의 배열순서와 달리, 기록된 순서에 따르면 짧은 서문이 앞서고 긴 서문은 나중에 삽입되었다. 새로운 서문을 쓰게 된 동기는 서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다. 이 새로운 서문을 덧붙인 이유로 이전의 짧은 서문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숨김없이 더 “드러내놓고”(openly)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sup>3</sup> 다시 말하면 이는 긴 서문의 첨가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짧은 서문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주목할 점은 두 서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관계가 명시된 것처럼 단순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한 가지 살펴보자.

#### 짧은 서문

한 백색 수도사도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and a Whyte Frer proferyd hir to wryten frely yf sche wold. (6, 밑줄과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sup>4</sup>

#### 긴 서문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감정을 직접 받아들였다고 나서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영혼 속으로 그토록 빨리 책을 써선 안 된다고 명을 받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Sum proferyd hir to wrytyn hyr felyngys wyth her owen handys, and sche wold not consentyn in no wey, for sche was comawndyd in hir sowle that sche schuld not wrytyn so soone. (3, 밑줄과 이탤릭체는 필자 강조)

짧은 서문에서 등장하는 이 카르멜회의 수사는 이 서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칭되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캠프의 고해 신부 중 한 사람인 린의 앨런(Alan of

<sup>3</sup> 이 단어는 중기영어사전(MED)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2a. (b) plainly, clearly, distinctively; so as to be readily understood; also, literally, not allegorically or figuratively.

<sup>4</sup> 본 논문은 Sanford Brown Meech와 Hope Emily가 편집한 Early English Text Society의 *The Book of Margery Kempe*를 인용 텍스트로 사용한다. 이 후로 캠프의 텍스트는 페이지 수만 기록하겠다. 번역은 정덕애의 『마저리 캠프 서』(황소자리)를 인용하고 필자의 번역이 사용될 때는 명시한다.

Lynn)이었다.<sup>5</sup> 캠프는 새로운 서문을 쓰게 된 동기를 “그 전에 썼던 다음에 나오는 서문보다 드러내 놓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지요”(to expressyn mor openly than doth the next folwyng, which was wretyn er than this; 5)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긴 서문의 첨가는 표면적으로 짧은 서문을 부연 설명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준다. 하지만 분명 분량이 늘어난 긴 서문이 전적으로 짧은 서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은 아니다. 만약 긴 서문이 “드러내놓고” 짧은 서문의 내용을 확장하려고 했다면, 앨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첨가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긴 서문에서 앨런은 너무나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라는(sum)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그의 존재는 동시에 훨씬 더 강력하게 은폐되었다.

캠프는 왜 긴 서문을 새롭게 삽입하면서 앨런을 불특정 복수인으로 대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앨런이라는 인물과 캠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린의 앨런은 많은 저술을 한 덕망 있는 학자였다. 그는 특히 방대한 스웨덴의 브리짓(Bridget of Sweden)의 저서들을 연구하고 작품들의 목차를 정리했는데, 이 작업은 그가 캠프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학자가 캠프의 친구가 되어 남들이 의심하는 비전과 기적을 인정하고 믿어 주었다는 것은, 캠프가 겪은 경험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Gallyon 131). 실제로 그는 프란체스코회 수사가 캠프가 우는 것을 비방하며 자신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막았을 때 캠프를 옹호했고, 교회 지붕이 무너졌을 때 캠프가 무사했던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공표하기도 했다(9장). 그는 유일하게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캠프를 지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 둘은 한 사건을 빼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람들은 앨런과 캠프의 관계를 시기하여, 카르멜회 수도원의 교구장(Provincial)이었던 토머스 네터(Thomas Netter)에게 앨런이 캠프와 너무 자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불평했다. 네터는 롤라드의 열렬한 반대자였기에, 평신도가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위클리프 추종자들과 롤라드들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다. 네터는 특히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 1410), 존 올드캐슬 경(Sir John Oldcastle, 1413), 윌리엄 화이

<sup>5</sup> “카르멜회의 수사”와 앨런의 동일시에 대하여는 윈렛(Barry Windeatt) 번역의 주를 보라(298).

트(William White, 1428)의 재판에서 큰 도움을 주었고, 롤라드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으며, 『완전한 자들의 종교』(*De religione perfectorum*), 『그리스도의 가난』(*De paupertate Christi*), 『그리스도의 몸』(*De Corpore Christi*), 『가톨릭교회의 믿음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Doctrinale antiquitatum fidei catholicae ecclesiae*) 등의 롤라드 관련 책들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하다.<sup>6</sup> 이런 네터는 앨런에게 캠프와 만나지 말 것을 명하고 앨런은 이에 순종한다(168). 이 사건에서 네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대화 자체보다는 앨런이 캠프에게 성서를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no mor spekyn wyth hir ne enformyn hir in no textys of Scriptur*; 168). 즉 이런 방식으로 캠프를 통제하는 가운데 네터는 자신의 롤라드 반박문인 『가톨릭교회의 믿음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에 나타난 주장대로 행하고 있다. 이 반박문에서 그는 여성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롤라드의 주장을 부정하고 여성들이 공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맹렬히 비난한다(Voaden 144-145). 비록 네터가 사건의 본말을 파악한 후 캠프와 앨런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지만, 이 경험은 캠프에게 큰 고통이었다(168).

짧은 서문에 나오는 카르멜회의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앨런과 연관된 사건들, 특히 롤라드와 관련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네터의 간섭을 받게 된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 그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위험한 순간들은 대부분 롤라드의 혐의와 관련이 있고, 서문에서부터 롤라드와 그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인물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렇기에 긴 서문은 이 이름을 불특정명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거론된 특정한 인물의 언급을 다수의 일반적인 지칭으로 대체한 것은, 표면적으로 단언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서문의 목적이 기존 서문의 단순한 확장 및 명확성을 위한 부연설명에 있지 않고 복잡하고 의도적인 수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앨런과 네터에 관련된 이 구절은 새로운 서문의 등장배경에 14세기 말, 15세기 초반을 휩쓸었던 종교적, 정치적 논란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긴 서문은 아론텔로 대표되는 종교검열에 대한 캠프의 적극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sup>6</sup> 네터의 반롤라드 저작이 15, 16세기 영국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Margaret Harvey의 “The Diffusion of the *Doctrinale* of Thomas Netter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를 참고하라.

### III. 아룬델의 칙령과 복수 서문

본 연구는 챔프가 서문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으로 왓슨(Nicholas Watson)이 지적한 아룬델의 칙령 이후에 생겨난 종교적 검열을 지목한다. 1407년 대주교 토마스 아룬델(Archbishop Thomas Arundel)은 롤라드에 대한 조치로 옥스퍼드에서 열린 공회에서 평신도 설교의 금지, 성경의 번역과 사용 금지, 신학 교육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 칙령을 공포한다. 왓슨은 칙령이 내재화된 검열로서 단순히 설교, 성경의 번역,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텍스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의미에서 영국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글쓰기의 맥을 끊었다고 주장한다. 왓슨의 분석은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의 역사와 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석의 체계모니를 가지고 있다. 물론 왓슨의 논문이 발표된 후 그의 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커비-폴톤(Kathryn Kerby-Fulton)이 억압, 침묵, 저항으로 대표되는 푸코(Michel Foucault)적 비평의 편견을 지적하며, 이에 영향을 많이 받은 스테일리(Lynn Staley), 에어즈(David Aers)뿐만 아니라 왓슨의 분석도 비판했다.<sup>7</sup> 커비-폴톤에 따르면 아룬델의 칙령 이후에도 속어신학적 표현에 있어서 왓슨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한 관용이 존재했다지만, 사실 이 관용은 귀족과 식자층을 대표하는 성직자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커비-폴톤의 주장과는 달리 챔프가 속한 계급, 즉 부르주아 계층은 후기 롤라드 운동의 중심에 있었기에 관용보다는 의심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비록 왓슨의 주장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챔프가 처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계층보다 그는 이 검열에 가장 민감한 대상이었을 것이다.<sup>8</sup> 노르위치(Norwich)의 롤라드 심문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대상은 장인, 중소상인, 하인들이었다. 챔프가 글을 쓸 무렵 롤라드 운동은 지식층과 성직자 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평신도 층, 특히 챔프가 속한 부르주아 계급에서 활발했다(Atkinson 104). 챔프의 계급뿐만 아

<sup>7</sup> 왓슨의 논의에 대한 비평은 커비-폴톤 외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왓슨의 논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모은 *English Language Notes* 44(2006)를 참조하라.

<sup>8</sup> 커비-폴톤 자신도 아룬델의 칙령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한다. 그에 따르면 칙령은 식자층을 대표하는 엘런에게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었지만 부르주아 여성인 챔프에게 “금지”(inhibition)였다(260).

나라, 그가 지나친 종교적 표현을 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은 롤라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러했듯이 롤라드도 여성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기 때문에 박스터(Boxter)처럼 대중에게 연설하는 여성은 롤라드라는 칭호를 쉽게 들었다.

아룬델의 칙령에 대한 캠프의 의식은 그와 아룬델의 만남에서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캠프는 그들이 직접 대면하는 순간을 기록하는데, 이 장면을 기술하는 방식에서 그가 칙령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마저리 캠프는 끊임없이 롤라드로 몰려 몇 차례 살해 협박을 당했고(36, 124, 129), 심지어 군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했다(28-29). 롤라드를 가장 혐오했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칙령을 제정한 성직자와 캠프와 같은 여성이 직접 대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캠프가 이러한 박해의 주역이었던 대주교 아룬델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둘 사이의 대화에서 긴장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이다. 아룬델은 캠프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흔쾌히 그의 청을 들어준다(36). 그리고 캠프는 “대화는 하늘에 별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her dalyawns contynuyd tyl sterrys apperyd in the fyrmament)고 말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한다(37) .

이 서정적인 묘사는 서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비교할 때 아주 파격적이다. 실제로 『마저리 캠프 서』에서 이런 묘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反)롤라드 운동의 수장과 롤라드로 자주 오인 받는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조금의 긴장감도 없이 이처럼 서정적으로 그려질 수 있는가? 롤라드였던 윌리엄 소프가 아룬델의 심문을 받는 상황을 그린 『윌리엄 소프의 증언』(*Testament of William Thorpe*)에서 나타나는 적대적 분위기는 이 서정적 묘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하늘에 별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 대화는 실제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라기보다 캠프가 보여주고 싶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모든 텍스트는 글쓴이의 시각을 반영하겠지만, 캠프는 자신에게 유리한 서술을 하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修辭)적 조작을 하고 있

<sup>9</sup> 딜론(Janette Dillon)은 이 부분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라기보다 정통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분석한다. 이에 대해서는 딜론의 “Margery Kempe’s Sharp Confessor/s”(132-33)를 참고하라.

다. 캠프는 이 장면을 통해 아룬델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자신과 성직자 사이의 갈등이나 긴장감을 교묘히 감춘다.

긴 서문에서 캠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수사적 조작과 달리 훨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아룬델의 칙령과 그 시대에 대응한다. 캠프의 전략적 반응은 중세의 속어 서문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sup>10</sup> 중세 서문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캠프의 서문과 같은 속어 서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속어 저자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켰다. 중세 속어 서문은 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전통 그리고 속어저자 사이에서 속어 저자의 위치에 대한 교묘한 타협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속어저자가 라틴어로 대표되는 지배적 문화 가운데에서 독자와 텍스트의 해석에 대하여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Davenport 53-54). 다른 모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권력, 재연, 차이, 욕망이 공존하는 서문의 공간에서 이러한 타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속어저자는 서문에서 독자의 위치까지 규정하려고 했다(Wogan-Browne et al. 111). 최근의 속어 연구(*The Idea of the Vernacular*)에 실려 있는 수많은 14, 15세기의 속어 서문이 보여주듯, 속어저자들은 라틴어와 교회의 담론과 같은 지배적 이데올로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독자에게 자신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하려한다. 중세 말 가장 영향력이 큰 이데올로기는 정치와 종교였는데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모든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속어 서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속어 저자가 서문을 통해 저자의 위치에 오르려는 노력은 단순히 수사

<sup>10</sup> 아룬델의 칙령과 이에 따른 검열은 캠프의 서문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속어신학 텍스트의 서문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왓슨은 칙령이 속어 신학의 서문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두 작품을 거론한다. 하나는 『시온의 과수원』(*The Orchard of Syon*)으로 시에나의 가타리나(St. Catherine of Siena)의 『대화』(*Il Dialogo*)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의 15세기 영어 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독백 위서』(*Pseudo-Augustinian Soliloquies*)의 번역이다. 두 작품 모두 고도의 신학적 사상을 다루고 있지만 번역가들은 자신들이 덧붙인 서문을 통해 이런 사상이 플라도로 오인 받지 않고 단순한 명상집으로 읽힐 수 있도록 만든다. 아룬델의 영향 아래에 있던 영국에서 번역은 많은 대륙의 신비주의자들의 글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주조(Heinrich Suso)의 『지혜의 시계』(*Horologium sapientiae*)와 가타리나의 『대화』를 들 수 있다. 번역이라는 효과적 장치는 두 작품에 내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특히 『대화』의 번역가는 텍스트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지만, 과수원에 비유한 서문과 차례를 삽입함으로써 책의 내용은 위험한 신학적 사상이 아닌 명상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속어가 투쟁했던 정치적 종교 혹은 종교적 정치라는 문화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깔려있다. 리처드 2세의 시기에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서문을 썼던 초서(Geoffrey Chaucer)와 가우어(John Gower) 뿐만 아니라, 종교 검열을 의식해 쉬운 영어 사용을 주장했던 서문을 과감히 삭제한 『북부설교집』(*The Northern Homily Cycle*)의 편저자에게도 서문은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적으로 맞아야 했던 공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서문에서 새로운 서문이 이전 서문을 비교적 자유롭게 대체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른 속어저자들뿐만 아니라 캠프에게도 역사적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세 서문은 유동적인 필사본 문화로 인해 복수성(plurality)을 갖게 되는데 이 복수성은 새로운 판본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서문을 갖게 되는 현대 작품의 단순한 연대기적 성격과는 달리 저자, 필사가, 정치 종교적 상황, 서문의 전통 등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마호니(Dhira Mahoney)는 중세 작품의 복잡한 일체성, 즉 다양한 이본/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구성의 예로 랭랜드(William Langland)의 『농부 피어스』(*Piers Plowman*)의 중요한 세 버전, A, B, C를, 초서의 『선녀 전설』(*Legend of Good Women*)에서 F사본과 G사본을,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에서 헝거트(Hengwrt) 사본과 엘스미어(Ellesmere) 사본을, 말로리(Thomas Malory)의 『아더왕의 죽음』(*Morte Darthur*)에서 윈체스터(Winchester) 사본과 캐스터(Caxton)의 인쇄본을,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의 『계시』(*Shewings*)에서 긴 텍스트와 짧은 텍스트를, 리드게이트(John Lydgate)의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에서 다양한 사본을, 마지막으로 가우어의 『연인의 고백』(*Confessio Amantis*)에서 두 가지 서문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중세 작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이한 이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본/텍스트의 존재는 단순히 편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품의 이해와 해석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작품들은 이본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23). 특히 필사과정에 존재했던 필사가, 편집가, 주석가의 개입은 다양한 “텍스트 상태”(états du texte)의 존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문의 존재를 가능케 했다(Zumthor 72). 캠프의 복수 서문도 이런 필사본 문화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복수 서문이 가능했던 상황과 대

표적인 복수 서문을 살펴보는 것은 캠프의 서문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초서의 『선녀 전설』(*Legend of Good Women*)과 가우어의 『연인의 고백』을 대표적인 복수 서문의 예로 들 수 있다. 두 저자의 긴밀한 관계만큼 그들의 작품도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두 작품 모두가 (필사가가 아닌) 저자에 의해서 쓰인 각각 두 개의 서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들의 복수 서문을 분석해보면 그들이 새로운 서문을 덧붙여 문학적 전통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전전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서와 가우어는 이전의 서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문에서 저자로서의 위치와 관련된 수사적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텍스트에 권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리처드 2세가 가져온 정치적 변화에 그들의 입장을 맞추고 있다.<sup>11</sup> 다시 말하면 초서나 가우어에게 서문은 저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협상하는 공간인 것이다. 캠프의 서문은 이 두 대표적인 중세 영국 작가들의 서문과 유사한 전통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서와 가우어가 사용한 서문의 전통들은 캠프의 서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들의 서문에서 유사하게 등장하는 요소들, 즉 책의 기원(*genesis*), 후원자 청탁(*jussio*), 겸손의 토포스(*modesty topos*) 등은 그들 모두가 같은 서문의 같은 전통을 빌려 자신의 서문을 구성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서문이라는 공간은 영국 당대 최고의 작가들인 초서와 가우어뿐만 아니라, 캠프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에게도 중요한 곳이다. 초서와 가우어가 자신들의 서문을 통해 스스로를 저자의 반열에 올리고, 정치적 상황에 타협하고, 독자이며 동시에 정적(政敵)인 사람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캠프에게도 서문은 이런 방식의 협상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롤라드와 거리를 두기 위해 인물의 정체를 전략적으로 감추는 캠프

<sup>11</sup> 초서와 가우어 모두 새로운 서문에서 주로 라틴전통의 서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서문을 통해 저자(auctor)로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두 작가의 욕구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Copeland 186-220). 또한 이들은 새로운 서문에서 리처드의 2세와 관련된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초서는 새로운 서문에서 왕비 앤(*Anne of Bohemia*)의 죽음과 리처드 2세의 분노에 반응하며 앤을 상기시킬 수 있는 지명을 삭제하고(*sheene*, F 497), 가우어는 헌정의 대상이었던 리처드의 2세를 새로운 서문에서 삭제함으로써 리처드에 2세에 대한 환멸을 표현한다(l. 24).

프의 모습은 그에게도 이 공간이 유리한 협상이 가능한 곳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캠프는 앨런의 이름을 불특정 복수로 대체하고 그의 존재를 지움으로써 몰라드와의 연관성을 배제하려는 전략 이외에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칙령의 후폭풍을 견뎌낸다. 캠프가 긴 서문에 새롭게 덧붙이고 있는 것들은 몰라드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긴 서문에서 강조되는 교회의 권위와 영의 분별(*descretio spirituum*)은 새로운 서문의 탄생이 아룬델의 칙령에 대한 의식과 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캠프가 비록 초서나 가우어와 정확히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복수 서문의 전통을 통해 시대적 압력, 즉 아룬델 이후의 종교적 검열에 자신의 방식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IV. 긴 서문: 교회의 품으로

캠프는 몰라드를 연상케 하는 이름, “앨런”을 감추는 한편 새롭게 삼입한 긴 서문을 통해 그의 텍스트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려 했다. 이는 캠프가 짧은 서문을 긴 서문으로 대체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짧은 서문을 살펴보면 이 서문은 그의 텍스트의 기원과 재가(裁可)에 대한 과감한 진술이다. 짧은 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흔히 등장하는 고해의 증언이다. 세상의 부와 교만으로 가득 차있던 자신이 가난, 병고, 수치와 징계로 하느님께 가게 되었다는 고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서문은 경험의 기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뜻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의 경험을 글로 옮기라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 백색 수사의 권유가 있었지만, 캠프는 신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책을 쓰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제대로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의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 캠프에 대한 많은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 사제가 감동을 받아 예전의 기록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옮기려 했지만, 그는 4년 동안이나 글을 읽을 수 없었다. 캠프의 요청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캠프의 책은 성자전과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그의 서문에서 성자전 전통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된 성자의 삶을 기록한 성자전의 서문은 짧지 않은 반면, 이 짧은 서문은 다른 성자전의 서문에 비해 많이 짧다. 서문은 기록된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성자전 작가는 성자의 삶에 대한 기록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성자전의 서문은 성자전 저작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고, 중요한 주제나 장을 개괄하고, 중요한 자료를 언급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문은 작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탄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Goodich 168). 이런 일반적인 성자전 서문에 비해 캠프의 첫 번째 서문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아직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는 캠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글에 대한 변호이지만 이 짧은 서문에서 이러한 변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짧은 서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캠프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긴 서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긴 서문은 책의 목적을 밝히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여기 죄 많은 불쌍한 인간들에게 위안을 주는 짝맞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은 많은 위안과 평안을 얻을 것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니, 그 이름 끝없는 공경과 찬미를 받을지어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처럼 하찮은 사람들에게 황송하게도 그의 선함과 고귀함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침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역사하시는 그 어떤 은총도 우리가 자비심이 부족하여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은 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Here begynnyth a schort tretys and a comfortabyl for synful wrecchys, wherin thei may have gret solas and comfort to hem and undyrstondyn the hy and unspcabyl mercy of ower sovereyn Savyowr Cryst Jhesu, whos name be worschepd and magnyfyed wythowten ende, that now in ower days to us unworthy deyneth to exercysen hys nobeley and hys goodnesse. Alle the werkys of ower Saviowr ben for ower exampyl and instruccyon, and what grace that he werkyth in any creatur is ower

profythy yf lak of charyté be not ower hynderawnce. (1)

첫 구절에서 책의 목적은 죄인인 피조물들이 이 책을 통하여 위안(solus)과 위로(comfort)를 받는 것, 하느님의 높고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본(exampyl)을 배우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면에 부각되는 이 세 가지 목적은 교회의 정통적 교리에서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기에, 캠프의 서사적 정통성은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다.

긴 서문은 계속해서 짧은 서문의 도입 부분을 상당한 길이로 확장시킨다. 짧은 서문은 이 책이 세상의 부요함과 허영에 빠져있던 캠프가 “가난,” “질병,” “수치,” “비난”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A schort tretys of a creature sett in grett pompe and pride of the world, which sythen was drawyn to ower Lord be gret poverté, sekenes, schamis, and gret reprevys in many divers contres and places..) 요약하면서, 회심의 과정으로 책의 구조를 설명하려 한다(5-6). 얼핏 보면 긴 서문은 짧은 서문의 단순한 확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장이라기보다 계속 되는 변주이다. 위 인용문에 해당하는 구절을 긴 서문에서 살펴보면 총 5군데에서 단순하게 변주될 뿐이다.

첫 번째 구절에서 짧은 서문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성령으로 인한 죄인의 회심을 중심으로 재정리된다. 두 번째 구절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그리스도의 자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을 밝히면서 짧은 서문에서 말한 하느님의 시험들, “가난,” “질병,” “수치,” “비난”을 이전의 상태와 대칭적으로 표현하면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이 대칭의 강조는 캠프의 책을 회심의 순환 속에서 읽혀지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정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서사 속의 위험한 내용이 이 순환의 틀에서 읽혀지면서, 고난의 실제적인 원인보다 이 순환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역사적 특수성은 희석된다 할 수 있다. 세 번째 반복은 캠프의 삶의 모범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확인시킨다. 네 번째는 짧은 서문의 “질병”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또한 낮게 하시는 것도 모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명확히 한다. 마지막 구절은 짧은 서문의 “가난”에 대한 단조로운 변주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히 길어진 이 부분을 짧은 서문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별다른 변화 없는 동일주제에 대한 변주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짧은 서문에 비해 긴 서문이 논리

적 연결 관계도 강하지 않고 장황한 느낌을 준다면, 짧은 서문은 오히려 간략하지만 필요한 모든 내용을 적절히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긴 서문의 변주된 확장에서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지 않고 다만 강조와 역설 부분이 더 명확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짧은 서문이 캠프의 회심을 이끄는 주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명확히 하지 않고 단지 그의 회심의 방향이 그리스도인 것만을 밝힌다면(*was drawyn to ower Lord*), 그에 비해 긴 서문은 회심의 주체가 바로 신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짧은 서문의 신에 대한 칭호가 “우리 주님”(ower Lord) 하나였다면 긴 서문에서는 “구세주”(savior), “그리스도”(christ), “예수”(Jesus), “성령”(Holy Ghost)와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된다. 동의어 반복을 통해 긴 서문은 다음에 등장할 이야기의 주체가 신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암묵적으로 주입한다. 서사 속 캠프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에 단순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긴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가가 캠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캠프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동인이 그가 아니라 신의 섭리인 것을 강조하게 된다(Holbrook 269).

이 단조로운 변주 후에 짧은 서문에 없는 새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이 구절은 이 회개가 한 개인이 신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영혼의 어머니인 교회의 날개 품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sekyng socowr undyr the wengys of hyr gostly modyr, Holy Cherch)과 “성직자에게 순종하는”(obeyd hyr to hyr gostly fadyr) 것이 캠프의 회심의 마지막을 이룬다. 이 부분은 캠프와 필사가의 의도적인 삽입이라고 볼 수 있다. 짧은 서문에서는 나중에 책에서 나타난다고 하며(*sum schal ben schewed aftyr*) 이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이 삽입 부분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직자에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2). 아룬델의 칙령의 핵심은 성경해석과 성례에 있어서의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이다. 이렇게 개인 신앙의 문제를 교회 권위의 틀 안에 둬으로써, 캠프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책이 지닌 문제들을 덮는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려한다. 이 삽입 역시 새로운 서문이 쓰일 때 칙령이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서문의 주장은 서사의 내용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는 캠프의 서사가 고해신부와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고해신부와의 갈등으로 끝난

다는 것이다. 캠프의 책은 고해신부의 성급한 꾸짖음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던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기록한다. 이 장면은 고해신부의 실수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Book II, 10)에서 캠프는 고해신부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머느리를 배웅하기 위해 단치히(Danzig)까지 다녀온 후, 그로부터 호된 꾸중을 듣는다. 이외에도 캠프와 교회의 관계는 대부분 불안했다. 하지만 새로 첨가된 부분은 교회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명확히 한다.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 역시 새로운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짧은 서문을 확장한다. 여기에서 “울음”과 “영의 분별”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데, 이 둘은 그의 삶과 서사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서사를 추동(推動)한다. 캠프의 삶에서 이 두 주제는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 서로 엉켜있는 괴로운 난제였다. 울음은 영적인 신앙의 육체적 표현이었고, 영과 육의 이질적인 공존은 그의 신앙을 의심의 대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긴 서문은 이 둘을 별개의 상관없는 문제로 분리시킴으로써 울음과 영의 분별, 각각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문은 캠프가 성령이 주신 눈물을 통해 “이후 일어날 많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해”(undyrstod many secret and prevy thyngys which schuld beffallen aftyrward) 할 수 있었고 “절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myth nevyr expressyn) 신의 사랑의 상징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캠프는 서문에서 다양한 어휘를 (“slawndred,” “repreved,” “cheden,” “rebuked”) 통해 울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로써 그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지를 고발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분 짓는다. 서문이 강조하는 “울음”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울음은 캠프에게 신의 선물이자 고난이었다. 통제할 수 없는 울음 때문에 캠프는 설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순례자들로부터 버림받기도 했다. 캠프의 울음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캠프 자신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신의 특별한 위로였다(Mahoney, “Tears” 42). 캠프의 울음은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울음 말고도 캠프에게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실천행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부녀인 캠프에게 불가능했던 지나친 금욕과 흰 옷의 착용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서문은 다른 문제는 뒤로 하고 오직 울음만을 다루고 있다.

서문에서 울음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울음은 대륙

의 다른 성녀들을 통해 공인된 신비체험이었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의 두 번째 필사가가 그를 인정하게 된 계기는 바로 와니의 마리(Marie of Oignies)와 헝가리의 엘리자베스(Elizabeth of Hungary)의 성자전을 읽고 그들의 울음과 캄프의 울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이다. 특히 62장에서 캄프는 와니의 마리의 울음과 관련된 전기의 일부분과 위-보나벤투라(Pseudo-Bonaventura)의 『사랑의 자극』(*The Prykke of Lofe*)을 인용한다. 이것은 비언어적인 울음에 텍스트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울음은 비록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울음은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권력이 되기도 하였다. 캄프의 눈물은 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입재의 상징이 된다. 울음은 신과 직접 연결되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지극히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증상’이다(98). 이렇게 절대적 타자인 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어떤 대의보다 자신의 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다(Mahony, “Tears” 40). 문제는 서사 속에서 나타나는 캄프의 울음이 지나치게 육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캄프는 적어도 서문에서만은 울음의 육체적 표현을 제한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교회는 성과 속, 영과 육의 이분법이 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교회의 검열에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된다.

다음으로 새롭게 첨가된 부분은 캄프의 “영의 분별”과 관련된 것이다. 영의 분별은 신비한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정교하게 발전된 교회의 담론이다. 이 담론은 신비한 경험과 신비주의자를 평가하고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표현의 방식, 그리고 주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담론에 대한 지식은 신비주의자들과 그들의 텍스트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Voaden 4). 흑사병, 백년전쟁, 서방교회 대분열(Papal Schism)과 같은 거대한 사회의 소용돌이 가운데 탄생한 많은 여성 신비주의자들은 기적과 신비경험을 통해 신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주장하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영의 분별은 교부시대부터 존재했지만, 중세 말 사회적 혼란기에 많은 여성 신비주의자들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요시카와(Naoë Kukita Yoshikawa)에 따르면 영의 분별은 캄프의 책 전체에



걸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비록 캠프가 복잡한 신학적 담론의 차원에서 영의 분별에 의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책에는 영의 분별에 대한 그만의 독특한 반응이 담겨있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캠프의 여행지와 시기는 콘스탄츠(Constance) 공회 그리고 바젤(Basle) 공회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는 것이다. 이 두 공회는 무엇보다도 브리짓의 시성(諡聖)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의 영적 경험을 검증하는 문제, 즉 영의 분별을 다루기 위해 소집되었고 캠프와 필사가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캠프가 모범으로 삼았던 여성 신비주의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브리짓이 사후 두 번에 걸친 공회의 심판대에 오르고 이단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캠프가 책에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기술 할 때 영의 분별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긴 서문에서도 캠프는 영의 분별의 문제를 의식한 듯 교회 권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서문에서 성직자들과의 만남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다. 긴 서문에는 그에게 영의 분별을 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된다. 이 열거된 목록은 어쩌면 캠프가 영국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3). 캠프의 책은 일반인과 다른 방식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캠프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해결할 수도 없었다. 캠프가 취한 방식은 권위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아룬델로부터 노르위치의 줄리안까지 수많은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나쁜 성직자들로 매도하기도 했다.

영분별 담론은 신의 전령인 여성 신비주의자들에게 교회의 인정뿐만 아니라 육체의 포기를 요구한다. 영의 분별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는 여성이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며, 죄를 옮기기 쉽다는 중세의 편견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모두 여성의 육체와 관련이 있다(Voaden 66-68). 캠프가 친밀하게 알고 있던 두 여성은 육체를 포기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먼저 캠프의 역할 모델이었던 브리짓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성가신 여성의 육체를 지우고 목소리로만 자신을 구성한다. 『고독의 편지』(Epistola solitarii)에 나타난 브리짓의 계시는 육체와 감각에 의존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고 그의 성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신비한 경험을 글로 표현할 때 행동에 대한 묘사가 필요하지

만 그의 필사가인 알폰소(Alfonso)는 육체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마치 육체와 성을 초월한 빈 그릇처럼 브리짓을 설명하고 있다(Voaden 89). 캠프가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노르위치의 줄리안도 자신의 물리적 존재가 사라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줄리안의 계시는 질병으로 육체가 마비되어 병석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낮이 될 때까지 견뎌냈다. 그때에 내가 느끼기에 나의 몸은 허리 아래로 마비되어 있었다”(Thus I indured till day, and by then was my body dead from the miedes downward, as to my feeling; 290). 허리 아래, 즉 성기와 자궁의 마비는 그에게서 여성의 육체를 제거한다. 그렇기에 줄리안의 텍스트에서 육체적 영역은 사라지고 그 육체가 사라지는 공간에 새로운 “계시의 지형”(visionary topography)이 나타나게 된다(Harding 181).<sup>12</sup>

하지만 캠프의 책은 그렇지 못하다. 캠프는 충돌하는 두 가지의 요구, 즉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과 신이 부여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했다. 캠프는 교회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교회의 영적 분별 시험에 통과해야 할 때는 자신을 감추어야 했지만, 신의 명령으로 울거나 흰 옷을 입어야 할 때, 성직자들과의 논쟁하거나 유사 설교를 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야 했다.

영의 판단의 담론 속에서 만들어진 신비주의자는 신의 말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보여서도, 목소리가 들려서도 안된다. 하지만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마저리가 보이는 동시에 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사라질 수 없다.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의 모습과 목소리이다.

A visionary formulated within the discourse of *discretio spirituum* should not be seen, neither should her voice be heard, except speaking God's words. However, to be scorned means that Margery must be both seen and heard. She cannot vanish; it is the sight and sound of her which elicits abuse. (Voaden 119)

<sup>12</sup> 이 부분에서 줄리안이 일시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가 육체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적 체험과 추상적인 신학이 남성 신비주의자에게 동시에 허락되지만 줄리안을 포함한 여성 신비주의자들에게 여전히 분리되어 있음은 부정하기 힘들다.

서문은 종교적 담론의 권위에 기대어 위에서 말한 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육체적 존재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긴장감을 삭제한다. 특히 긴 서문은 울음과 영의 분별을 한 곳에서 다루지 않고 관계없는 별개의 것으로 기록한다. 다시 말하면, 캠프의 육체적 존재를 알리는 울음과 자신을 버리고 신의 목소리가 되기를 요구하는 영분별 담론은 그에게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 서문은 이 둘을 따로 서술함으로써 캠프가 받은 영이 순수한 것임을 강조한다. 영분별의 담론에서 강조되는 또 한 가지는 캠프의 능동성이다. 긴 서문은 캠프가 사탄의 속임수에 민감하게 느끼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영분별의 대상이 외부에서 강요되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문제임을 부각시킨다. 더더욱 이 서문은 캠프가 종교 권력에 피동적으로 영의 분별을 받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의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한다. 캠프는 성령에 이끌려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went) 것이고, 그들로부터 심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spak also with) 것이다.

이후 긴 서문 대부분은 짧은 서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필사 과정에 대하여 서술한다. 캠프가 처한 불리한 환경에서 필사가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존재인 동시에 수사적 장치이다. 힐데가르드의 빙엔(Hildegard of Bingen)이나 피잔의 크리스틴(Christine de Pisan)과 같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정통성을 배경으로 필사가들을 압도하지만 캠프는 반대로 남성 필사가들의 존재를 통해 그러한 배경을 어느 정도 갖게 된다. 아룬델의 칠행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종교적 검열의 시대에 남성 필사가의 권위를 빌려와야 하는 입장에서 캠프는 남성 필사가와 그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더 “드리내 놓고” 설명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가 필사가의 등장에 대하여 가장 많이 확장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필사가가 그의 정통성에 대하여 의심하지만 기적을 통해 다시 정통성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이는 이 피조물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너무 많아서 그녀 말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for ther was so mech obloquie and slawndyr of this creatur that ther wold fewe men beleve this creatur; 6)라는 짧은 기도문의 설명은 긴 기도문의 10배가 넘는 길이로 확장된다(4-5). 하지만 앞에서 다루었듯이 앨런이라는 아주 민감한 인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축소하고 침묵하고 있다.

캠프의 텍스트는 90년대에 와서야 스테일리과 로크리(Karma Lochrie) 같은 여성주의 비평가들을 통해 단순한 사료(史料)가 아닌 여성작가의 작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의 주장이 90년대 극단적 여성주의 비평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찾아낸 중세 여성의 전략적 글쓰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가운데서 스테일리는 켐프를 공동체의 정치/종교적 허구를 극화된 자신의 삶이라는 또 다른 허구로 해체하는 사회비평가로 평가한다. 그에게 켐프는 초서와 랭랜드에 견줄 수 있는 문학적 전략가이기도 하다(34). 서문을 통해 살펴본 켐프는 대표적인 중세 영국 남성작가들과 비견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적 글쓰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스테일리의 주장을 입증한다. 긴 서문은 아룬델의 칙령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검열에 대한 켐프의 섬세한 반응이고 그 속의 확장, 덧붙임, 삭제는 검열에 대한 그의 치열한 의식과 이에 대한 전략적 반응임이 명확하다. 서문을 통해 권위 있는 저자로 거듭나고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응하려 했던 초서와 종교 검열에 맞서 자신과 자신의 텍스트를 보호하고 신의 사명을 수행하려 했던 켐프 사이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제어 | 마지막 켐프, 서문, 아룬델의 칙령, 검열, 속어

## 인용문헌

- 정택애(역). 『마저리 켐프 서』. 황소자리, 2010.
- Atkinson, Clarissa W. *Mystic and Pilgrim: The Book and the World of Margery Kempe*. Ithaca: Cornell UP, 1983.
- Beckwith, Sarah. "A Very Material Mystic: The Medieval Mysticism of Margery Kempe." *Medieval Literature: Criticism, Ideology and History*. Ed. David Aers. Brighton: Harvester, 1986. 34-57.
- Catherine, Phyllis Hodgson, and Gabriel Michael Liegey, eds. *The Orchard of Syon*. London: Oxford UP, 1966.
- Chaucer, Geoffrey. *The Riverside Chaucer*. Ed. Larry D.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opeland, Rita. *Rhetoric, Hermeneutics, and Translation in the Middle Ages*.

-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Davenport, Tony. *Medieval Narrative: An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2004.
- Dillon, Janette. "Margery Kempe's Sharp Confessor/s." *Leeds Studies in English* 27 (1996): 131-38.
- Evans, Ruth. "The Book of Margery Kempe." *A Companion to Medieval English Literature and Culture, C.1350-C.1500*. Ed. Peter Brown. Malden, MA: Blackwell, 2007. 507-21.
- Harding, Wendy. "Body into Text: The Book of Margery Kempe." *Feminist Approaches to the Body in Medieval Literature*. Ed. Linda Lomperis and Sarah Stanbury.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3. 168-87.
- Harvey, Margaret. "The Diffusion of the Doctrinale of Thomas Netter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Intellectual Life in the Middle Ages: Essays Presented to Margaret Gibson*. Ed. Lesley Janettef Smith. London: Continuum, 1992. 281-94.
- Holbrook, Sue Ellen. "'About her': Margery Kempe's Book of Feeling and Working." *The Idea of Medieval Literature: New Essays on Chaucer and Medieval Culture in Honor of Donald R. Howard*. Ed. James M. Dean and Christian K. Zacher. Newark: U of Delaware P, 1992. 265-84.
- Gallyon, Margaret. *Margery Kempe of Lynn and Medieval England*. Norwich: Canterbury, 1995.
- Gower, John. *The English Works of John Gower*. Ed. G. C. Macaulay. London: Paul, 1900.
- Lochrie, Karma. *Margery Kempe and Translations of the Flesh*.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91.
- Kempe, Margery. *The Book of Margery Kempe*. Ed. Sanford B. Meech and Hope Emily Allen. Oxford: Oxford UP, 1982.
- Kempe, Margery. *The Book of Margery Kempe*. Trans. Barry Windeatt. New York: Penguin, 1994.
- Kerby-Fulton, Kathryn. *Books Under Suspicion: Censorship and Tolerance of Revelatory Writing in Late Medieval England*.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2006.
- Mahoney, Dhira B. "Gower's Two Prologues to *Confessio Amantis*." *Re-Visioning Gower*. Ed. R. F. Yeager. Asheville: Pegasus, 1998. 17-37.
- \_\_\_\_\_. "Margery Kempe's Tears and the Power over Language." *Margery Kempe: A Book of Essays*. Ed. Sandra J. McEntire. New York: Garland, 1992.

37-50.

- Staley, Lynn. *Margery Kempe's Dissenting Fictions*.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P, 1994.
- Sturges, Robert S. "Medieval Authorship and the Polyphonic Text." *Bakhtin and Medieval Voices*. Ed. Thomas J. Farrell.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5. 127-37.
- Taylor, William and William Thorpe. *Two Wycliffite Texts: The Sermon of William Taylor 1406, the Testimony of William Thorpe 1407*. Ed. Anne Hudson. Oxford: Oxford UP, 1993.
- Thompson, Anne B. ed. *The Northern Homily Cycle*. Kalamazoo, MI: Medieval Institute, 2008.
- Voaden, Rosalynn. *God's Words, Women's Voices: The Discernment of Spirits in the Writing of Late-Medieval Women Visionaries*. York: York Medieval P, 1999.
- Watson, Nicholas. "Censorship and Cultural Change in Late-Medieval England: Vernacular Theology, the Oxford Translation Debate, and Arundel's Constitutions of 1409." *Speculum* 70 (1995): 822-64.
- \_\_\_\_\_. "The Composition of Julian of Norwich's Revelation of Love." *Speculum* 68 (1993): 637-83.
- \_\_\_\_\_. "The Making of *The Book of Margery Kempe*." *Voices in Dialogue: Reading Women in the Middle Ages*. Ed. Linda Olson and Kathryn Kerby-Fulton.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2005. 395-434.
- Watson, Nicholas, and Jacqueline Jenkins, eds. *The Writings of Julian of Norwich: A Vision Showed to a Devout Woman and a Revelation of Love*.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P, 2006.
- Wogan-Browne, Jocelyn, Nicholas Watson, Andrew Taylor, and Ruth Evans, eds. *The Idea of the Vernacular: An Anthology of Middle English Literary Theory, 1280-1520*.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P, 1999.
- Yoshikawa, Naoë Kukita. "The Making of *The Book of Margery Kempe*: the Issue of *Discretio Spirituum* Reconsidered." *English Studies* 92.2 (2011): 119-37.
- Zumthor, Paul. *Essai de Poétique Médiévale*. Paris: Seuil, 1972.

**ABSTRACT****Two Proems of *The Book of Margery Kempe*:  
Arundel's Constitutions and the Birth of the Long Proem****Heegoo Lee**

Margery Kempe replaced a reference to the only identifiable person for an indefinite plural pronoun while expanding the short proem [prologue] into the longer one. Tellingly suspicious is her claim that the long proem would expand the short one more “openly” because she virtually disembodied the white friar. Alan of Lynn indubitably referred to in the short proem was the only unwavering spiritual guardian of Kempe. His dialogue with her about Scripture often provoked people around her, including Thomas Netter, who took a salient part in the prosecution of Lollards. Alan’s absence, which otherwise might have aroused Lollard-sensitive suspicions, can be explicated only by Kempe’s fear of the censorship bearing down not only her life but also her narrative. Kempe appears to erase the friar to defend her book against the conventional charges of heresy prescribed by Arundel’s Constitutions, the representative censorship measure against Lollards. The case of Alan applies to the remainder of the entire long proem in which Kempe varies the contents of the short proem without significant changes, or emphasizes the authority of church with new additions such as discernment of spirit. From comparison of the two proems we can know how well Kempe was versed in the medieval prologue tradition, where multiple prologues were not exceptions, and how tactically she managed to utilize the prologues to protect herself and her narrative against the religious censorship, as Chaucer and Gower did against their political status quo.

**Key Words** | Margery Kempe, proem, Arundel’s Constitutions, censorship, vernacular

원고 접수 2012년 12월 30일 | 심사 완료 2013년 1월 23일 | 게재 확정 2013년 1월 24일